

다산포럼



전근식 서울대 명예교수

지난 6월 약 3주일간의 보스턴 체류는 나에게 큰 지적 충격을 주는 기회였다. 바이오제약산업의 세계적인 중심지가 된 MIT대학 주변을 비교적 자세히 살펴보면 과학적 연구 성과들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산업으로 전환되는 현장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30년 전 보스턴의 지적 중심은 하버드 스퀘어였고, MIT 주변은 각종 창고들이 자리잡고 있어서 후미진 뒷골목 같은 분위기였지만, 지금은 세계적인 바이오 산업체들이 몰려들어 짧은 기간에 켈달 스퀘어가 생명과학산업의 중심지로 부상했다.

이 거리를 걷다 보면 구글, 피자, 모더나, 노바티스와 같은 세계적 기업들뿐만 아니라 MIT 부속의 맥거번 뇌연구소, 코흐 암 연구센터, 과학박물관 등을 10분 만에 모두 만날 수 있다. 유전자 및 정신심리학을 다루는 브로드연구소, 화이트헤드연구소, CIC 산학협력 스타트업센터 등이 즐비하고, 여기에 더해 하버드대, MIT대, 매사추세츠 병원(MGH)이 공동으로 운영할 '생명과학의 미래의 집'이라는 라곤연구소 건물 신축 공사가 한창이다. 2016년 통계에 따르면 이곳에 투자된 금액은 20억 달러, 특히 5600개, 일자리 8만 2000여 개

켈달 스퀘어에서

였는데, 코로나를 거치면서 2022년에는 투자액 270억 달러, 특히 1만여 개, 일자리 1만 400개로 늘었고, 그 사이에 실험실 면적은 세 배로 증가했다. 세계 최고의 20대 바이오제약회사 중에서 19개 회사가 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하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바이오 혁신 생태계의 급속한 변화는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에 대한 답을 하려면 최근 20년간 이 장소가 걸어온 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04년 미국 최고의 공과대학의 하나였던 MIT의 연구자들은 새롭게 생명과학의 필요성을 느끼고 대학 주변에 연구소를 설립하기 시작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백신으로 유명해진 모더나가 바로 이곳에서 성장하였다. 2013년에는 생명과학의 연구 성과들을 상용화하는데 필요한 각종 실험들을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는 랩 센트럴이 문을 열었다. 주 정부로부터의 약간의 기금과 이 분야 우수 기업들로부터의 후원금으로 설립된 이 시설에서 연구자들은 실험을 반복하면서 상용화의 길을 찾았다. 현재 이곳에는 약 50개의 예비 회사들이 입주하여 창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들의 목표는 최대한 빨리 성과를 축적하여 독립해 나가는 것이다. 이곳에는 고가의 공동 실험 기자재들이 구비되어 있고,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1인당 하나의 책상만을 두고 연구를 하고 있으며, 이 공간 바로 옆에는 이들을 지원하는 행정 요원들과 각 회사 대표들이 역시 책상 하나씩 두고 일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무척 인상적이었다.

랩 센트럴에 입주해 있는 스타트업 회사 K2B Therapeutics의 창업자인 보스턴 대학의 김 교수는 이곳에서 역동적인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근본적 요인들

을 다섯 가지로 정리해 주었다. 첫째, 높은 수준의 풍부한 학술 연구, 둘째, 바이오 테크놀로지 창업을 위한 기업가 정신, 셋째 초기 스타트업에 필요한 비용과 고위험 분산, 넷째, 경험이 있는 고급 노동력의 공급, 다섯째,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실험 시설과 장비 등이었다. 세계의 어느 도시보다 보스턴이 이런 요소들을 잘 구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가능했다는 것이다.

일본은 일찍부터 실리온 밸리뿐 아니라 보스턴의 바이오 혁신 생태계에 관심을 가지고 심층적 검토를 해왔다. 우리 사회에서도 오래전부터 반도체산업 이후 한국 경제를 이끌어가던 21세기 주도 산업을 생명과학과 인공지능(AI)에 의존해야 한다는 잠정적 합의가 있었고, 그 일환으로 지난 4월 말, 한국 대통령이 국내 주요 의생명분야 지도자들과 함께 이곳을 방문했지만, 과연 의미 있는 정책으로 연결될지 아직은 알 수 없다. 그동안 정부가 조성한 의생명산업단지에는 이를 이끌어갈 핵심 대학과 병원이 없고, 국내 최고의 의과대학과 병원은 여전히 진료 중심의 압박에 벗어나기 어려우며, 의생명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주변 공간이 별로 없다. 생명과학 외부의 철학적 사회과학적 역량과도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

성패의 핵심은 국내 최우수 대학의 연구 역량과 병원, 그리고 혁신적 의생명산업체가 쉽게 만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다. 대학내외의 과도하게 구축되어 있는 연구 실험 공간 구조를 뛰어넘어 켈달 스퀘어처럼 일상적 개방과 협력이 가능한 미래 실험 공간의 창출, 이것이 우리의 대학 개혁의 방향, 나아가 의생명산업의 미래의 좌표가 되어야 한다.

청춘 특특

우리가 매일 실패하는 이유



조혜원 동신대 상담심리학과 2년

문제는 우리가 이 모든 결과의 탓을 자신에게 돌리며 '어차피 하지도 못할 거 왜 해야 하지?' 라는 무기력함과 죄책감에 빠져 도전조차 두려워하고 꺼리는 사람이 돼 버리는 것이다. 회피와 합리화가 결국 또 다른 실패를 불러들인다는 얘기가.

그렇다면 자심삼일의 습관을 바로잡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우선 자기 효능감을 높여야 한다. 자기 효능감은 자신이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믿는 심리학적 용어다. 미국의 목사이자 저명한 작가인 노먼 빈센트 필은 "자신을 믿어라.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라. 겸손하지만 합리적인 자신감 없이는 성공할 수도 행복할 수도 없다"며 자기 효능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자기 효능감이 높은 학습자들은 그들 스스로가 과제 또는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자원이 풍부하다고 지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과제에 대해 높은 수준의 노력을 투자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자기 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성취감이다. 결국 작은 일부터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거나, 작은 습관을 바꾸거나 만드는 데 성공하며 성취감을 얻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긍정적인 생각이다. 미루던 일들에 대해 듣기 좋은 핑계를 만드는 자기 합리화가 아닌, 말 그대로 과제를 했을 때 나올 결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사고

하라는 의미이다. 이를 '접근 동기'라고 한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반드시 동기가 필요하다. 목표를 세우거나 어떤 일이나 행동을 할 때 그에 따른 동기가 있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사고는 그 일을 꼭 하게 만드는 접근 동기가 된다.

가령 학교 과제를 예로 들어보자. 내가 조금 더 노력해서 완성된 리포트 또는 발표 자료를 보며 스스로 성취감과 만족감을 느끼는 것은 자기 효능감을 높일 수 있다. 또 그 결과로 더 좋은 학점을 받고, 더 많은 장학금을 받을 수 있으며, 좋은 직장에 취업까지 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접근 동기가 될 수 있다. 이런 결과들을 생각하면 벌써 막 힘이 나고 하루 빨리 결과를 얻어내어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하게 되지 않겠는가?

반대로 나에게 더 좋지 않은 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회피(회피 동기)하는 것도 필요하다. 학교 과제를 하지 않았을 때 받게 될 F학점 등 더 큰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해 학교 과제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을 믿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방법만으로 우리는 자심삼일이라는 굴레에서 한 걸음 멀어질 수 있다. 작은 일부터 차근차근 자심삼일의 징크스를 깨기 위해 자신과의 싸움에 노력을 투자하자. 설명 몇 번 한다고 하더라도 괜찮다. 우리에게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며 그런 습관이 나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기고

존엄을 지키는 인간의 한 방식



강문혜 소설가

스트레스들을 새내기 교사가 고스란히 떠안고 있었던 것이다. 폭력적인 업무배치와 업무량, 그의 자살 사유는 실은 이것만으로도 충분할지 모른다.

그런데 출근길에는 '선생님 때문이야' 라고 소리치는 학생의 환성이 들리는 것이다. 학부모는 교무실로 들어다쳐 "교사 자격이 없다"고 질러댄다. 교사로서의 권위는커녕 수치심에 고개를 들 수조차 없다. 몸은 지칠 대로 지쳐 있고 마음은 만신창이 되었다. 마땅히 비벼볼 곳도 없다. 학부모의 아동 학대 신고가 두려워 교권보호위원회 신청도 못 한다.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어떤 사람, 어떤 시스템도 부재하다. 비참함과 무력감, 자기감을 속에서 왜 살아야 하나? 무엇을 할 수 있나? 당연히 실존적 회의와 자문들이 일어났을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마지막 존엄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로서 그는 결국 죽음을 선택했던 것이리라. 앞날이 구만리 같은 젊은 교사가 자기 결정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선택이 오직 '자살' 그것 하나밖에 없었다면, 그 사회는 얼마나 암담하고, 절망스러었는가.

방학 직전이었다는 점과 죽음의 장소로 학교를 선택했다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방학과도 타협하지 않은 단호함과 함께 학교라는 장소에서는, '교사로서의 죽음'을 보여 주고 싶었던 의식적 결단 같은 게 일어난다. 젊은 교사의 순교에 동시대를 사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빛과 슬픔을 느낀다면 우리는 그의 죽음에 분노하고 발언하는 바,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교사의 현실을 봐 주세요! 교권과 교육 환경을 바로잡아 주세요! 그러지 않으면 교육도 미래도 어떤 희망도 없어요!

고인의 마지막 모습을 상상해 본다. 비통하고 두려웠을 시간, 그러나 잠시, 그는 아주 고요하고 차분한 시간

을 맞았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교보재 준비실 바닥에 떨어져 있는 교구를 올려놓으며 그것들을 가지고 수업했던 날들을 떠올렸을지 모른다. 그리고는 더 많은 것들이 주마등처럼 스쳤을 것이다. 교육대에 합격하고 승리로 총명한 의욕으로 삶을 바꿨던 어느 찬란한 하루, 꿈에 부풀었던 교사 임용, 그리고 가족과 지인들이 스치면서는 목도 좀 메이면서 마지막 인사도 했을 것이다.

아버지 어머니, 나를 사랑해 준 모든 분들, 죄송요. 용서하세요. 제가 다시 살 마음을 낸다 해도 아무 자존감도 없이 꾸역꾸역 버티는 수준에서 살 것 같아요. 더 방치하다간 영혼마저 너털너털해져 버릴 것 같아요. 집이 되고 싶진 않아요. 잠깐 슬퍼하다 훌쩍 털어버리세요. 학급의 트러블 메이커들을 떠올리고서는 피식, 웃음기마저 빠져나오지 않았을까? 이상하지, 평소 같으면 이가 득득 갈렸을 건데 마지막 길에서는 엄청 사 람이 관대해진다야. 그래 니들이 무슨 죄겠니? 개념 없는 어른들이 끔찍하지. 제멋대로 살다가 괴물은 되지 말고 어떤 계기 속에서 인생과 세계에 도움이 되는 인간으로 성장하길 바랄게. 내 죽음이 그런 신성한 계기를 줄 수 있다면 며, 감사할 일이고.

그를 존경하고 따랐던 반의 예쁜 친구들도 당연히 떠올랐을 것이다. 너희들 선생님이라서 영광이었어. 쌤이 과도한 업무와 민원에 시달리면서 많이 웃어 주지 못했어. 그 점 늘 미안했다. 쌤 없는 오늘 수업도, 쌤에 대한 충격적인 뉴스도 모두 미안. 그러나 이제는 쌤도 자신을 좀 보호하고 싶구나. 아, 따뜻한 커피라도 한 잔 준비하는 건데. 향긋한 커피 향기라도 함께 했다면 마지막 가는 길이 조금은 덜 고역스러웠겠지? 아쉬운 게 어찌 한 잔 커피뿐이겠니. 이제는 가야 할 시간, 모두 안녕~

社說

사망자 속출 '살인적 폭염' 빈틈없는 대책을

가마솥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전국에서 온열 질환으로 목숨을 잃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그야말로 '살인적 폭염'이다. 옛새제 폭염 특보가 이어진 광주·전남 지역에서도 열사병과 열 탈진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 주말 사이 폭염으로 경북과 경남·경기·충북·전북 등에서 15명이 목숨을 잃었다. 사망자다수는 온열 질환에 취약한 고령자도 대부분 발일 등 농작업을 하러 나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들은 모두 의생분야 지도자들과 함께 이곳을 방문했지만, 과연 의미 있는 정책으로 연결될지 아직은 알 수 없다. 그동안 정부가 조성한 의생명산업단지에는 이를 이끌어갈 핵심 대학과 병원이 없고, 국내 최고의 의과대학과 병원은 여전히 진료 중심의 압박에 벗어나기 어려우며, 의생명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주변 공간이 별로 없다.

광주·전남도 전 지역에 옛새제 폭염 특보가 지속되면서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고 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어제 오전 10시를 기해 여수·목포 등 전남 12곳에 폭염 정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26일 광주와 해남·담양부터 내려지기 시작한 폭염 정보는 전남 22개 시군 전역으로 확대됐다.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 체계'에 따르면 지난 26일부터 30일까지 광주 12명, 전남 29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다. 정전 피해도 잇따랐다. 지난 29일 오후 광주시 남구 월산동의 한 아파트에서는 노후화된 변압기에 과부하가 걸리면서 불이 나 312세대에 전력 공급이 끊겼다.

한반도를 뒤덮은 살인적 폭염은 이달 발견 당시 체온이 높은 상태였다. 온열 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 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어지러움·근육 경련·의식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고 방치하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

광주·전남도 전 지역에 옛새제 폭염 특보가 지속되면서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고 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어제 오전 10시를 기해 여수·목포 등 전남 12곳에 폭염 정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지역 출신 해외 독립운동가 적극 발굴해야

광주·전남 출신 해외 독립운동가 수백 명이 서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재기 전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어제 서구문화원의 '2023 문화아카데미' 강연에서 광주·전남 출신 수만 명이 항일운동에 적극 참여했음에도 120여 명만 서훈을 추서받는데 그쳤다고 밝혔다. 항일운동에 참여한 일본 지역 30여 명, 미주 300여 명, 멕시코·쿠바 지역 30여 명 등은 서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김 교수가 지난해부터 1년에 걸쳐 보훈부와 일본·미국·멕시코 현지 자료를 확보해 조사한 결과다.

해외 독립운동가들은 국가나 지자체 차원의 발굴 사업이 이뤄지지 않아 잊혀지고 있다. 김 교수는 최근 해남 출신으로 멕시코에서 17차례 이상 독립운동 자금을 후원한 허재호 선생의 기록과 그 손자 루이스 올센 씨를 찾았다. 한데 허 선생은 아직 서훈을 받지 못했다. 유족을 찾지 못해 서훈이 전달되지 못한 사례도 적잖다.

김 교수는 지난 6월 쿠바에서 활동한 해남 출신 독립운동가 주한웅 선생의 가족을 수소문해 보훈부에 계류 중인 서훈을 전달하기도 했다. 정원 선생은 미국 대한민국회 기관지인 '신한민보' 주필 겸 편집인을 맡는 등 독립운동을 한 공로로 정부로부터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받았으나 유족을 찾을 길 없어 서훈이 8년 동안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

광주·전남 출신 해외 독립운동가를 발굴하는 일은 지역사의 지평을 넓히는 일이다. 숨겨진 독립운동의 역사를 복원하고 후세에 알리는 것은 현 세대의 의무이기도 하다. 보훈부에서 특정 지역 출신 해외 독립운동가를 집중 발굴하지 않는 만지 차지단체가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우리 지역 출신 해외 독립운동가 자료 등을 확보해 보훈부와 협력한다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잊혀진 독립운동가를 발굴해 재조명하는 일에 지자체의 전향적인 자세가 절실하다.

無等鼓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지명을 놓고 여야가 격돌하고 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에 대해 '방송 생태계를 미래 지향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경험과 의지를 모두 갖춘 적임자'라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 등 야권은 "(이 후보자는) 인사 청문 대상이 아닌 수사 대상이며 국민과 언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라며 지명 철회를 거듭 촉구하고 있다.

야권이 이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우선 이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내면서 국가정보원 등을 통해 공영방송 갈등이기에

방송 환경 변화가 필요하고 야권에서는 이를 막아 내는 것이 내년 총선 전략 차원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방통위의 권한은 막강하다. 지상파, 종편 등에 대한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것은 물론 공영방송 지배 구조에 직접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는 방통위를 통해 '포털 뉴스 개혁'의 밑그림도 그리고 있다. 과거 이명박 정권 시절에는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며 '방통대군'으로 불리

방통대군 논란

었다. 그는 보수 일간지에 종합 편성 채널을 허가하고 방송 3사 사장 교체 등을 주도하면서구에 보수 성향의 방송 환경을 조성, 많은 정치적 갈등을 일으킨 바 있다.

야권의 반대에도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은 강행될 가능성이 높다. 인사 청문회가 통과 의례로 전락한지 오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방통위원장 임명을 밀어붙인다고 해서 다매체 시대의 방송 환경을 바꾸기는 쉽지 않다. 윤석열 정부가 퇴행적 정치 논리로 방송 장악에 나선다면 오히려 민심의 반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되새겨야 한다. /임동욱 선임기자·이사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주간 程厚植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52	에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4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80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